영광 법성포단오제…단오빛에 취하다

22~25일 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원
가요제·전국 씨름·팔씨름 대회
민속·제전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

영광법성포단오제가 22일부터 25일까지 '단오, 만사형통!'을 주제로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원에서 열린다. 선상에서 지내는 용왕제. 〈영광군 제공〉

"6월 여름날 단오빛에 취해보자."

영광법성포단오제가 22일부터 25일까지 '단오, 만사형통!'을 주제로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원에서 열린다.

영광군에 따르면 법성포단오제는 매년 음력 단오를 전후로 개최되며 500년 역사를 자랑한다. 2012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올해 단오제에는 용왕제·선유놀이·당산제·산신제 등 전통 민속·제전행사를 비롯해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법성포단오제 씨름왕 대회·법성포단오가요제·전국 팔씨름 대회·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됐다.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영광군 실버장기자랑, 용왕제, 산신제, KBS국악한마당이 진행되며 둘째날인 23일에는 당산제를 시작으로 대통령배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단오학생예술제, 법성포단오가요제, 만사형통 드론 라이트쇼가 행사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셋째 날인 24일에는 민물장어잡기 체험, 전국 KAF팔씨름 평가전, 전남 청소년 만사형통 페스티벌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천년의빛 영광 작은 음악회가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영광군은 법성포단오제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 차원에서 노점음식점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노점음식 가격을 조정했다. 협의 결과 축제기간 노점음식점 가격을 1000원~5000원 가량 낮추는 데 합의했다.

통돼지 바비큐는 기존 5만원에서 5000원 할인한 4만5000원에 판매하고 홍어회는 기존 5만원에서 4만80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안주류 가격은 3만원을 넘기지 말자는 합의에 따라 꼼장어볶음이나 낚지볶음, 곱창볶음 등 안주류 가격은 2만9000원으로 1000원 인하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그동안의 행사보다 특별한 모습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가족과 함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법성포단오제를 함께 즐기고 영광의 멋과 맛을 느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햇빛·바람·바다·예술·정원이 신안 발전의 원천"

박우량 신안군수 1주년 성과 보고회

박우량 신안군수가 민선 8기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군정 주요 성과 보고회에서 군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박우량 신안군수가 20일 민선 8기 1주년 '열린 군정,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군정 주요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100년을 바라보는 1004섬 신안'을 주제로 정책 방향과 군정 주요성과, 향후 주요 추진사업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박우량 군수는 "민선 8기 1년 동안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신안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오로지 군민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신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남이 가지 않는 길 ▲문화·예술이 꽃피는 섬 ▲사계절 꽃 피고 숲이 울창한 섬 ▲다양한 정책을 통한 소득 극대화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 자원의 최대 활용 등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신안군은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평가에서 최우수등급(A)에 선정돼 272억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이 돌아오는 섬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 '햇빛 아동수당'을 1인당 연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전력을 쏟고 있다.

박 군수는 미래 100년의 밑거름이 될 1섬 1정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총 7075억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통해 3802억원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으며, 33개소 정원에는 군비 1695억원을 투입해 읍·면별 대표 수종을 심어 사계절 꽃피는 섬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502만4793㎡(152만평)의 압해읍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하고, 이 중 29만7520㎡(9만 평)을 농공단지로 조성할 목표도 세웠다.

군은 또 '마지막 다이아몬드 제도권'의 완성을 위한 신의-장산 연도교 건설이 제6차 국도국지도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 신안이 가지고 있는 햇빛, 바람, 바다는 군민의 희망이 되고, 신안 10GW 신재생에너지는 전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섬 신안의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섬 문화·예술·정원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세계 유일의 섬 신안의 원천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진해운 쾌속선 '드림아일랜드호' 취항
해남 우수영~신안 신의도 뱃길 빨라진다

26일 운항…소요시간 40분 단축

신진해운이 해남 우수영항-신안 장산-신의도를 잇는 신규 여객선 '드림아일랜드호'〈사진〉로 보다 빠르고 안전한 뱃길을 연다.

신진해운 등에 따르면 현재 육지에서 신안 장산도와 신의도로 가는 뱃길은 목포에서 출발해 상태동리 구간으로 왕복 4시간이 넘게 소요돼, 섬을 찾는 관광객이나 섬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여객선 세척이 정기운항(주·야간)하고 쾌속선도 운영중이지만 운항 횟수가 적고 차량의 진출입 시 적체 현상도 잦아 시간이 지체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섬 지역에서 생산한 소금(전국 생산량 30%) 등 농·수산 물류운송에도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배편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목포-상태서리 항로에 1일 2회 쾌속선 퍼스트엔젤호를 운항하고 있는 신진해운은 해남 우수영항에서 출발하는 신규 노선을 구축해 오는 26일 운항을 시작하기로 했다.

해남 우수영항은 천혜의 항포구로서 서해안 및 남해안 고속도로 간 연결성이 뛰어나며 무료 주차 공간이 넓어 차량 이용에 부담이 없고 서울, 목포, 순천, 부산 등 타지역으로 진출하기가 편리한 곳이다. 또 우수영교차로는 18번 국도와 77번 국도가 분기하면서 타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다.

우수영~장산도~신의도간 여객선이 운항되면 현재 장산도~목포 항로 운항시간이 2시간 20분 가량이지만, 이 항로는 절반 가량인 1시간 10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신안 장산도, 신의도, 하의도 거주인구가 4600여명에 달하고, 농수산물 등 물동량도 많아 경제성이 있다는 게 해운사 측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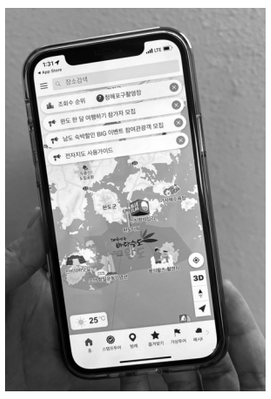
신진해운은 26일 운항을 시작하고 8월께 신규배가 들어오면 우수영~장산도 구간만 운행하게돼 운행시간이 40분정도 단축되면서 보다 높은 경제성을 갖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28년간 섬 주민들과 관광객의 발이 되어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이항노 (유)해진·신진해운 회장은 "신안 장산면과 하의면, 신의면 주민들의 정주 여건 변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전남 동부권 및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등 전국관광객들의 해상 이동시간도 확연히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며 "육지로 이송되는 전국의 물류 수송 시간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만큼 해남과 목포 투트랙(two track) 항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군 '스마트 관광 안내지도 시스템' 구축

스탬프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도



완도군이 인터넷·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맞춰 '스마트 관광 안내지도' 시스템을 구축했다.〈사진〉

스마트 관광 안내지도에는 권역별 관광지, 해수욕장, 문화재, 공원, 청산도 슬로길 등 주요 관광지 정보가 담겨 있다.

또 내비게이션·길 찾기 기능을 비롯해 교통과 맛집, 숙박업소, 행사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지별로 아이콘을 적용해 해당 지역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했고 스탬프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스마트 관광 안내지도에는 음성 안내 기능과 외국어 기능도 추가했다.

'스마트 관광 안내지도'는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wando.dadoea.kr'를 입력하거나 '완도군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 앱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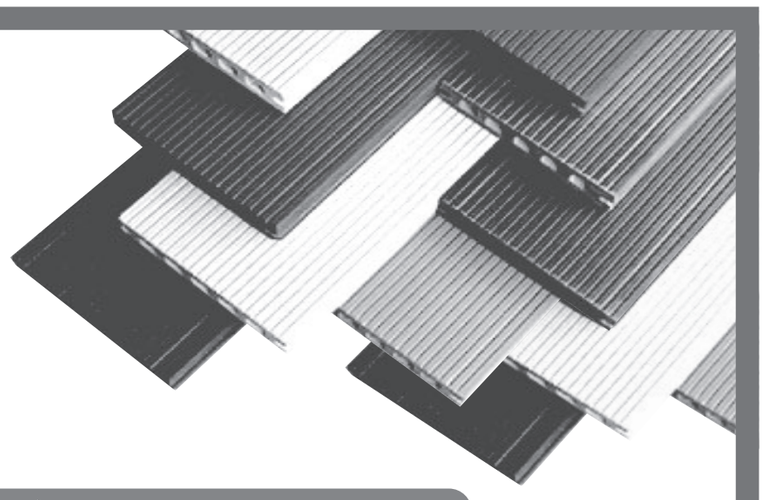
완도군 관계자는 "스마트 관광 안내지도는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다양한 관광시책을 통해 관광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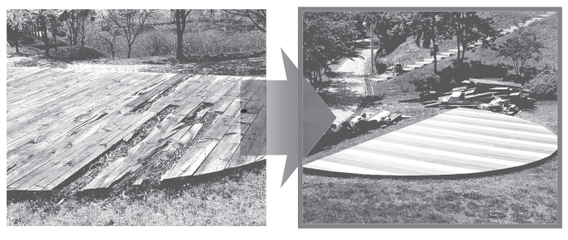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